

목포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정중득 목포시장

“목포신항, 對中 무역항 키우겠다”

“올해는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의 구체화와 관광·투자·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중득 목포시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에 지

5대 권역 관광인프라 구축

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목포항을 ‘동북아 크루즈·다도해관광 및 물류 중심항’으로, 목포신항은 ‘대중국 무역항과 여객 중심항’으로 특화 발전시키고, 목포대교 본격 시공·삼학대학교 신설·국도 77호선인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반도 연결공사 등을 조기 착공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함께 관광·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정시장은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목포권 관광발전 프로젝트’를 마련, 유달산권·삼학도권·갯바위권·북항권·고하도권 등 5대 관광거점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항만·물류·산업·신산업 거점 도시 육성과 함께 원도심과 신도심을 균형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임대료와 건물수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13개의 특화거리 지정도 정시장의 구상이다.

무안반도 통합 준광역도시

올해는 또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서산·온금지구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시범 추진되고 환경현대화사업과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도 구축한다.

목포를 전남의 행정·문화·예술·교육·체육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시장은 올 한해를 ‘서남권 광역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무안반도를 통합해 인구 60만의 준광역도시를 만들고, 2단계로 해남·영암 등 서남권 7개 군을 하나로 묶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건설을 추진하

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서~터미널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올 6월까지 개통시키는 한편 옥암지구 택지개발 1·2단계 78만평을 2008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목포~영암~남악~무안을 잇는 서남권 광역 도로망 구축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옥암 78만평 앞당겨 조성

특히 보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운영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 시행 ▲혁신닥터 치료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중득 시장은 “생각을 바꾸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면 길이 열린다”며 “25만 시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목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 목포앞바다에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힘차게 전진해 가자”고 역설했다.

숲 어우러진 ‘녹색 목포’ 만든다

20억 들여 보행자 숲 가꾸기 등 착수

목포시가 숲이 어우러진 ‘녹색 목포’ 조성 사업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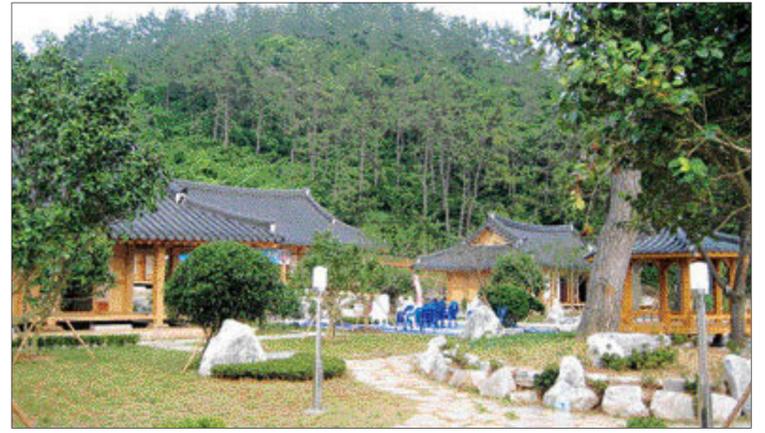
시는 오는 3월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하당 신도심 보행자도로 도시숲 만들기’를 시작으로 교통숲 조성, 가로수 수종 개선, 담 허물기, 삼지공원 조성 등 녹색 목포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시는 신도심 장미거리와 하당동 구간에 편익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해 쇼핑과 휴식, 공연 등이 가능한 현대적 감각의 도시 숲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제일중학교 등 3곳의 담 750m를 헐어낸 뒤 나무를 심고 휴게시설을 설치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옛 죽동교회 부지 790㎡에 삼지공원을 조성, 구 도심권 주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 주민화합의 장을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도 2호선을 비롯한 산정으로 용당로 등 5개 노선에 심어진 버즘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외래수종 1천100여 그루를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향토수종으로 바꿔 목포만의 독특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꽃이 있는 외달도 목포 외달도가 꽃이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된다. 목포시는 우선 해수욕장과 도로 등 3만4천48㎡에 유채와 안개초, 꽃양귀비, 황화 코스모스, 풍점초, 메밀꽃 등 외달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씨를 파종하고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외달도는 지난해 한옥 휴양시설이 조성되는 등 사계절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북항에 요트 기반시설 구축

170억 들여 마리나·클럽하우스 등 건설

목포시가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북항 목포해양경찰서 부근 해안을 요트산업기반 구축 후보지로 확정하고 국비와 민자 등 모두 17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 공사에 착수, 오는 2008년까지 요트 3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레프조요양장 등 부대시설을 완공할 계

획이다.

마리나 시설이 들어설 북항은 천혜의 자연적 입지조건에다 서해안고속도로와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에 크고 작은 조석소가 많아 요트 수리와 부대시설 이용 등이 편리한 요트 산업 시설 적지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준공되면 해양레저 장비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전국 단위 요트대회 개최와 전자훈련팀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교차로 10곳에 조명타워

목포시에 주요 교차로가 새해엔 더욱 밝아진다.

목포시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야경을 연출키 위해 무안동 1호광장, 북항 삼거리, 유달경차장 옆 등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조명타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해에도 목포역, 3호광장, 전남도청 입구 등 주요 교차로 8개소에 다양한 형태의 북항 가로등과 조명탑을 설치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福타일 그리기’ 등 신년 행사

한국산업도자전시관

목포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은 2007 정해년 새해를 맞아 1일 ‘정해년 福맞이’ 신년행사를 마련했다.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새해맞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복타일 그리기’, ‘희망 벽화 공

모자이크판 만들기’, ‘함급 돼지저금통 나누기’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새해맞이 소망과 계획을 그림 또는 글씨로 타일에 새겨넣는 ‘복타일 그리기’ 행사 참여자들이 제작한 타일은 산업도자전시관 소망의 벽에 부착, 영구 보존된다. 한편 이날 전시관을 찾은 선착순 300명에게는 함급 돼지 저금통이 증정됐다.

목포=이상선기자 sslse@

하이마트 배송차주 모집 | 하이마트협력업체로서 광주센터에서 근무하실 배송차주를 모집합니다. 광주하이마트 [Hi MART] -조수동승조건 -40세미만 -장기적으로 일하실 분 우선 채용

유해조수 구제, 멧돼지 잡는 공기총 출현 | 최신형 신제품 최고 위력(공기저장탱크 500cc)을 갖춘 공기총을 국내 최초 시판합니다. 연중 개인소지 및 자유보관 가능

대인동심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을 싸게 사실분 |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정우부동산 | 남구 석정동(전) 1876평 매도 -대지면적 37.7 (남구석정동) 2220평, 경면적 2020평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답 10,123㎡(3,062평) 농민보호구역 평당 30,000원

빛고원랜드공인중개사 | 비전있는 남구, 지름이 부주의 확립입니다 | 남구 남평면 노동리 -대지 650평 2525만원 쉼터 빌딩

대인부동산컨설팅 | 상담, 입식, 취득, 고가 전문점 적합 | 1층 50평 임대 -1층 83평(분할가능)신축건물

국민공인중개사 | 한 011-635-7939, 010-3114-6103 | 09의 8천 빌딩 대100평 전40평 보금구 2000평

하이링크 컨설팅 | ▶구해드립니다 ▶팔아드립니다 |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